

大巡思想의 宇宙史的 意義

李 恒 寧*

目 次

- | | |
|------------------|------------------------------------|
| 1. 甌山이 살던 시대적 상황 | |
| 2. 수운사상과 甌山사상 | (1) 天道 사상 (가) 우주화 사상
(나) 신명 사상 |
| 3. 甌山사상의 전개 | (2) 地道 사상 (가) 원시반본 사상
(나) 진경 사상 |
| (1) 고판례 계통 | (3) 人道 사상 (가) 解冤相生 사상
(나) 도통 사상 |
| (2) 조철제 계통 | |
| (3) 김형렬 계통 | 6. 大巡思想의 우주사적 의의 |
| (4) 이치복 계통 | (1) 인간자유의 확보 |
| (5) 강순임 계통 | (2) 인류평등의 실현 |
| (6) 기타 계통 | (3) 우주평화의 완성 |
| 4. 大巡思想의 형성 | |
| 5. 大巡思想의 요지 | |

1. 甌山이 살던 時代的 狀況

甌山이 살던 한국은 구질서의 동요속에 아직 신질서가 확립되지 않던 불안한 과도기 시대였다.

* 홍익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오랫동안 조선봉건왕조를 지탱해온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 송나라에서 신유교로 성장한 성리학은 중국인들이 오랑캐로 생각했던 몽골족이 중원에 침입하여 원나라를 세운데 대한 중국민족의 민족적 수치와 이에 반응하는 민족적 자존심이 유교를 내면화시켜 성리학으로 발전시켰다. 성리학은 중국민족이 스스로 각성을 다짐하는 동시에 대의명분론을 강조하여 일종의 배타적 경향을 띠기도 했다.

고려조부터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수용하였고 조선왕조시대의 국학이 되면서 이 성리학은 많은 학문적 발달을 이루는 동시에 너무 이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생겨 실생활에는 별 도움없는 일로 이론적 투쟁을 벌여 당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민생문제를 소홀히 하였고 한편으로는 대의명분들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문난적론으로 반대파를 치는 구실을 삼기도 하여 유교의 진면목이 흐려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쳐 국기가 흔들리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실학사상이 등장하였지마는 지배층의 부패와 민생고는 여전하였다.

이때를 기하여 서양의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고 그들의 식민지 야욕이 왕성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청나라도 列國의 지배속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미개한 나라로 알잡아보던 일본이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강국이 되어 조선을 넘보고 있었다. 이에 김옥균 등의 개화사상가들이 일본을 본받아 서양식 정치개혁을 하고저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길은 민족 본래의 신앙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수운은 동학을 창설했다. 동학은 지배층인 양반이 아닌 농민층으로 확산되어가서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최수운은 1824년 경주에서 출생했다. 신라말의 대학자로 신라정신을 신봉하던 최고운의 28대 손이다. 그는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여 동양의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仙道)를 다 연구하고 돌아와 신라의 고유신앙인 풍류도의 훌륭한 함을 다시 인식하고 풍류도 안에 유불선이 다 들어 있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고려에 이어져 팔관도로 발달되어 불교와 공존하였고 조선조에도 이어졌으나 선비도를 높이던 조정에서 배척되어 옛날처럼 성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미미하나마 민간신앙으로 이어 내려왔는데 산에 서낭당을 모시고 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하느님을 모시는 일이 이것이었다.

수운은 古來로 내려오던 제천에 관한 우리신앙에 관심을 갖게되고 서양사람의 기독교 사상에도 관심을 가졌다. 수운은 하느님을 받들고 모시는 일은 동서양이 다를 것 없으나 그는 동양의 하느님이 내재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서양의 하느님이 초월적인 것에 착안하여 道는 동서양이 같으나 學은 동서양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양의 基督教 즉 西學이 식민지 지배에 협조한 것도 알게 되었고 일본이 조선을 넘보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860년 수운은 大覺하여 東學을 창시했다. 1860년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 났는데 이웃 중국인 청나라에서는 홍수전이 1850년 기독교를 신봉하고 滅만興한의 旗幟를 들고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것을 증국번이 토벌하기 시작해서 1864년 홍수전이 자살하기까지에 이르게 하였고, 멀리 미국에서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1863년 링컨이 흑인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다.

수운이 외세를 배격한 것은 증국번과 같고 그가 반상·적서의 무차별을 선언한 것은 링컨과 같다.

수운이 1864년 순교한 뒤 그의 제자 최해월이 교단을 이끌었다. 1871년에는 甌山이 탄생하였는데 성은 강씨이다. 강씨 성은 상고 신농씨로부터 시작되어 이식 때부터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진주 강씨가 되었다.¹⁾

그 동안 국가 정세가 매우 불안하여 구질서를 타파하고 일본을 본받아 서양의 새로운 문명으로 개화를 시도하던 김옥균 일파가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1894년에는 동학교도인 전봉준이 갑오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1894년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甌山은 24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민생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도 없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를 구제할 수 있을까하고 노심초사했다. 그는 天下의 명산대천을 돌고 민심과 풍속을 살피고 동서고금의 만권서를 독파하여 지식을 넓히고 晝夜로 생각하던 중 1901년 신축년 31세때 7월 5일(혹은 7일)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일의 공부 끝에 오룡이 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도통하여

1) 『典經』, 행록, 1장 1절

天地大道를 열었다.²⁾

甌山은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길을 수운에게서 찾았다. 수운이 대각하여 성경신으로 수심정기하여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한층 발전시켰다. 수운의 시천주사상은 사람속에 한울님이 계시니 그를 모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곧 하느님이 되는 인내천 사상이다.甌山은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곧 하느님이 된다는 사상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자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宇宙의 최고신인 하느님 즉 상제이고 그리고 신은 곧 자기라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아시상제 또는 오내천의 자각에 도달했다.甌山은 곧 상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甌山이 스스로 상제라고 하는 오내천 사상에 대해서 불손하다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다. 오내천 또는 아시상제라는 것은 자신은 치성 기도 송주 묵념 정좌 심고 등 여러 가지 수련 수도 끝에 자기 심중에 모시고 있는 하느님과 일체가 되었다는 자각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도 『천이 덕을 나에게 내렸으니 누가 나를 어찌겠느냐』³⁾고 하여 자기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는 자신을 가졌고 석가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불성을 깨친 이상 자기는 모든 존재의 최상위임을 선언했고 예수도 자기를 스스로 하느님 아들됨을 선언하여 자기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이상 이미 보통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자신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甌山이 스스로 상제로 자신한 것도 그의 도통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세에 대각도통한甌山은 9년동안 天地公事로 우주신의 권능을 보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언과 치병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민생들을 구제했다. 이를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철학사상 종교사상이甌山사상 大巡思想이다.

甌山이 살던 시대적 상황이 큰 전환기에 있었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뿌리에 돌아가 동서양을 조화시키고 우주와 공존하는 넓은 사상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2) 『典經』, 행록, 2장 12절

3) 천생덕여 환퇴 기여여하

2. 수운사상과 甌山사상

甌山은 수운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일부에서는 甌山이 수운을 경시하였다는 말도 있으나 그렇게 볼수 없다. 甌山은 어디까지나 수운의 사상을 이어 동학을 발전시켜 수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甌山이 「성경신」을 강조하고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수운의 주문을 「흠치 흠치 태을천상원군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의 태을주와 같이 중시하고 이 주문을 주우영가, 주우수명으로 본 것(현무경)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수운을 존경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甌山이 수운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나 수운이 유교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고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천명과 신교를 거두었다고 하고(『典經』, 교운 1-9) 수운은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암은 유교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⁴⁾ 수운을 격하시킨 것으로 보는데도 있으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甌山은 어디까지나 수운을 인류사상 최고급의 성인으로 대접하면서 자기자신의 사명감을 더 강력히 내세운 것뿐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수운을 받드는 측에서나 甌山을 받드는 측에서나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수운과 甌山의 사상을 종합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너무 말의 표현에만 구애되어 그 말의 진의를 살피지 않으면 수운이나 甌山의 사상이 엄청나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甌山을 받드는 측에서 甌山이 수운을 격하시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甌山은 어디까지나 수운이 개척한 정신적 풍토에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수운을 받드는 사람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甌山은 어떻게하면 수운의 참사상을 발전시킬까 하고 고심 끝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운이나 甌山이 다 같이 천명을 받들고 後天開闢을 이끈 성인인데 그들의 염원은 相生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인 점에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이 상극의 세계가 되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수운이 사람들이 천주를 모시지 않는 데서 온 것으로 본데 대해서 甌山은 사

4) 『典經』, 교운, 1-65

람들이 원한이 가지지 않은 데서 온 것으로 보았다. 수운은 사람들이 천주를 모시면 원한은 풀릴 것으로 생각했고 甌山이 원한을 풀면 천주를 모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수운과 甌山사이에 다소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의견차를 표시하는 방법에 다소 과장된 어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운사상과 甌山사상은 다같은 동학사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그 우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장점을 따서 자기의 것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수운시대는 서양과 일본의 침략이 가시화되어 다소 급진적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고 甌山시대는 동학혁명으로 민중의 고통이 심하여 다소 유희적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계와 甌山계는 대승적 견지에서 상호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甌山사상의 전개

甌山은 1871년 강세하시고 1901년 대각하시고 1909년 화천하셨다. 그의 가르침은 여러 계통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1) 고판례 계통

(가) 선도교(태을교) : 甌山이 화천한 뒤 2년후에 1911년 차경석의 집에서 수부 고판례가 제일 먼저 교단을 개창하여 선도교라 하였다. 선도교는 그 뒤 태을교라고 하였다.

(나) 보천교 : 고 수부를 모시고 있던 월곡 차경석이 1916년 보화교를 창설하고 1922년에 보천교로 바꾸었다.

(다) 甌山교 : 고 수부의 태을교를 믿던 청음 이상호가 보천교로 옮기고 보천교를 떠나 대법사를 조직하였다가 甌山교로 고쳤다.

(라) 甌산도 : 甌山교를 믿던 운산 안세찬이 甌山교를 떠나 1978년 대법사 甌山교를 새로 세웠고 경전 안중건이 종정이 되면서 甌산도라고 바꾸었다.

(2) 조철제 계통

(가) 태극도 : 정산 조철제는 1895년에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여 1909년 15세때 부친과 함께 만주봉천지방으로 갔는데 그때 천명을 감지하였고 9년의 공부 끝인 23세 때인 1917년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하고 종통 계승의 계시를 받았고 그해 4월에 만주를 떠나 태인에 와서 공부를 계속하다가 9월에 龜山의 계시를 받고 안면도로 가고 10월에 모악산 대원사에 이르러 득도함을 선포했다. 1925년 태인에 무극도를 세웠는데 1936년 일본의 종교탄압령으로 은거하다가 1945년 부산시에 태극도를 다시 열었다.

(나) 대순진리회 : 우당 박한경은 1917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하여 30세 되던 1946년 정산이 세운 태극도에 입도하였고 1958년 정산이 선화하기 보름전 도전이 되었고 정산의 유명에 따라 종통을 계승받았다. 1968년 태극도의 일부 도인과의 마찰을 피하여 1969년 서울에 대순진리회를 개설했다.

(3) 김형렬 계통

龜山의 수제자 태운 김형렬은 차경석과 같이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모악산에서 치성을 드리다가 1921년 서울에서 불교진흥회를 조직하였다가 이듬해 미륵불교로 고치고 본부를 금산사에 두었다.

(4) 이치복 계통

龜山의 제자 이치복의 연비인 김형국에게 도를 받고 입교한 허육은 삼덕교를 세워 단군, 수운, 龜山을 모시고 있다.

(5) 강순임 계통

龜山의 정부인의 소생인 화은당 강순임은 그 남편 김병철과 같이 선불교를 창설하고 나중에 龜山법종교로 개칭하였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김양호는

청도대형원을 창설했다.

(6) 기 타

안내성 계통의 선도, 장기준 계통의 순천교, 채경대 계통의 인도교, 강승태 계통의 동도법종금강도, 김환옥 계통의 보화교, 정수산 계통의 미륵불교, 여처자 계통의 모악교, 김낙원 계통의 오동정교, 흥원 김계주 계통의 무을교·대한불교 미륵종, 김종용 계통의 용화사, 배용덕 계통의 甌山진법회, 박인암 계통, 문영산 계통 그외에도 여러 교단이 있다.

4. 大巡思想의 형성

甌山の 도맥은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 甌山을 직접 대했거나 그의 제자를 통하지 않고 甌山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전해왔다. 고 수부 계통의 종통은 甌山을 직접 대한 제자나 그 제자의 전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정산 계통의 종통은 甌山을 직접 대하였거나 그의 제자의 전도보다는 영적으로 甌山の 계시를 직접 받은 경우가 많다. 甌山교인 중에는 甌山이나 甌山の 제자로부터 전도받지 않고 甌山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과소평가하는 이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계시로 종통을 이은 것도 같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의 종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대하지 못하고 계시로 예수를 알게 되었어도 그를 높이 받들고 있다.

정산이 15세에 天命을 받들고 23세때에 甌山の 계시로 득도하였으므로 그 종통의 정당성을 인정 안 할 수 없다.

정산이 甌山の 계시를 받고 태극도를 세웠는데 정산이 우당을 도전으로 임명하고 그 도를 전했으므로 우당이 종통을 이은 것도 정당하다. 우당이 태극도에서 다시 대순진리회를 세웠어도 甌山, 정산의 도맥을 잇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하듯이 교조의 종통이 반드시 한 곳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도 대승, 소승이 갈라지고 선과 교가 갈라지고 기독교에서도 로마카톨릭과 그리스정교가 갈라지고 다시 개신교가 생겼다. 여러 종파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종통이냐 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종파가 가장 교조의 진의를 정확하게 받들고 어느 종파의 신앙심이 가장 두터우냐에 있다.

龜山의 사상은 천도, 신도, 선도, 미륵사상 등으로 상징되는데 정산은 龜山사상을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태극에 기초하였다. 태극은 무극에서 시작하여 태극이 되고 태극은 음양의 조화로 삼계를 대순하므로 우당이 태극의 동적 측면을 포착하여 大巡이라 하였어도 대순과 태극이 다를 바 없다. 龜山사상은 태극사상으로 집약할 수 있고 태극사상은 大巡思想으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大巡思想이 龜山과 정산의 종통을 이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다고 大巡思想만이 龜山사상의 종통이요 기타 龜山사상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각 종단은 그 종단대로의 종통성이 있을 것이다. 龜山の 각 종단은 결코 다른 종단을 이단시하지 말고 같이 종통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5. 大巡思想의 요지

大巡思想은 천지인 삼계에 미친다. 천계에는 천도(宇宙觀)이 있고 지계에는 지도(世界觀)이 있고 인계에는 인도(人生觀)이 있다. 大巡思想에서는 천지인 삼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천지인 삼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각도를 달리하여 보는 것에 불과하다.

우선 천도사상으로는 우주화사상과 신명사상이 근본을 이룬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거나 고작해야 자기주변에만 관심을 가지던 시절에 자기가 사는 세계와는 따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되고 처음에는 다른 세계를 적대시하다가 차차 통합의 단계를 거쳐 오늘의 地球思想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구사상만으로는 오늘의 지구문제나 인류문제나 세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지구보다 더 차원 높은 견지에서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주화사상이다.

우주에는 지구를 비롯하여 태양계가 있고 또 무한한 은하계가 있어 광대 무변하여 여기에는 무생물(물기), 생물(생기), 人間(심기), 영혼(영기), 신명(신기) 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우주적 질서는 신명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천도사상에서는 우주화사상과 신명사상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주가 크지만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지구다. 지구에는 지도가 있는데 지금의 지구는 오염되고 타락되어 지옥과 같이 되었으나 본래는 천상과 다름없는 선경이었다. 이 지도의 본래의 모습인 진경을 찾아보는 것과 그 진경에 이르기 위해서 원시반본하는 것이 지도사상이다.

천도가 있고 지도가 있으면 당연히 인도가 있다. 인도로서는 먼저 인간끼리 또는 인간과 동물사이 또는 인간과 신명 사이에 원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신명인 인간이 원한을 풀지 못해 금수처럼 타락하여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이 원한을 풀면 인간의 본래의 면목을 되찾아 신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간의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 도통이다. 그러므로 인도사상의 解冤相生 사상과 도통사상을 들 수가 있다.

(1) 천도사상

(가) 우주화 사상

인류는 혈연시대, 지연시대, 지구시대를 거쳐 우주시대로 진입했다. 혈연 시대는 인지가 아직도 몽매하던 원시시대로 가족, 종족들끼리 서로 살기 위하여 투쟁하던 시대요 지연시대는 민족과 국가가 일정한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각 민족과 국가끼리 경쟁하는 시대이다. 지구시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의식이 강하게 대두되어 전 지구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서로가 협동하는 시대다.

인류가 혈연시대에서 지연시대로 진화한 것은 혈연보다 지연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각자들의 덕이요 지연시대에서 지구시대로 진화한 것은 지연보다 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각자들의 덕이다.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에 얽매

여 씨족과 국가가 생활의 중심이어서 각 씨족과 각 국가가 경쟁하던 것을 지구촌시대를 대망하는 선각자들이 있어 지금 인류는 지구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구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인류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인류중에는 아직도 혈연시대, 지연시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곳도 많지만 역사의 발전방향이 지구시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인류는 말로는 지구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지연시대의 유물인 민족과 국가의 갈등이 심하다. 지금 진정한 지구시대를 실현시키려면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주화의 구상이다. 지구시대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더라도 그 지구에 연연하면 지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같은 낮은 곳에서는 알 수 없다.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아야 낮은 곳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구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구적 관점을 떠나 우주화적 시각에 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 우주화 의식을 최초로 제시한 분이 바로 甌山이다.

지금 우주과학은 상당히 발달되었다. 인류가 달에 상륙했고 인공위성이 별에 왕복하고 있는데 비해 인류의 사고 방식은 아직도 지구에 執着해 있다. 즉 우주과학은 발달되었지만 우주 철학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다. 우주 철학이라는 것은 우주화 의식을 갖는 것인데 인류는 아직도 우주화 의식에 둔감하다.

『典經』(교운1-9)에 「신도의 권의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나 인사가 도수를 어김으로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큰 겁액을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여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彌勒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제시하였으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세상에 내려 왔노라」는 말은 우주화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천지인 삼계사상, 인류와 신명계가 하나되는 사상, 천하 大巡思想 등이 들어 있는데 지구시대에는 신과 인간이 별개로 존재 하였지만은 우주시대에는 신과 인간이 같은 자격으로 공존한다.

지구시대를 指向하는 지금 국제화 세계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국제화 세계화를 완성시켜 진정한 지구시대를 열려면 먼저 우주화로 나가 우주시대의 구상이 필요하다. 혹 말하기를 지구시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금 우주화 사상을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하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주적 시각에 서야만 비로소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민족문제나 국가문제인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지구적 시각에 서야만 하는 것과 같다. 지구 시대를 완성시키려면 지구를 초월해 우주적 시대에 서야만 한다.

그동안 지구시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이제까지의 민족과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평화가 실현되는 지구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종교적 성인들이 이미 주장한 바가 있다. 유교의 인사상, 불교의 자비사상, 도교의 無爲自然사상, 기독교의 박애 등은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촌건설 사상이다. 단테의 세계제국론이나 칸트의 영구평화론, 톨스토이의 무정부주의 사상도 지구사상의 대표적인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후에 생긴 국제연합이나 제2차 세계대전후에 생긴 국제연맹이나 세계연방이나 도덕재무장 같은 정부 또는 비정부 국제기구 등이 모두 지구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이지만 그 성과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사상이나 운동이나 국제기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서는 그것들이 너무 지구 그 자체에만 집착하여 지구를 초월하여 좀더 고차적이고 좀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문제를 보고져 하지 않기 때문이다. 龜山은 일찍부터 인류평화공존을 위한 지구시대를 구상하면서 지구를 훨씬 뛰어 넘은 우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본 첫번째 사람이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적 해결만으로는 안되고 넓게 인간의 영혼 세계, 우주의 신명세계까지 뻗쳐있는 정신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고 했다. 종교인들은 물질을 무시하고 정신문제에만 몰두하여 인간의 이상사회를 사후의 극락이나 천당에 구하였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극락이나 천당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며 또 아무 제도나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

므로 인간에게 구체적 만족을 주지 못한다. 또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여 유토피아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이상사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극 상태에 있는 인간성이 그대로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다. 甌山은 후천개벽을 통하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신명을 발전 회복하여 지구의 정신계와 지구의 물질계가 다같이 공존하는 조화선경 또는 우주정부사상을 제시하였다. 甌山은 사람은 죽어서만 극락이나 천당에 갈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선경이나 낙원에 갈 수 있어야 하며 그곳이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평화스러울 뿐 아니라 이미 죽어간 사람이나 영혼까지도 평화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정부론은 지구상의 국가의 권력기구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甌山의 조화선경론이나 우주정부론은 지구상의 권력기구의 통제뿐 아니라 우주의 신령들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는 세속적인 권력 다툼에서 오기도 하지만 인류가 받드는 신명의 세력다툼에서도 온다.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의 다툼은 민족의 현실적 이해관계보다 민족이 신앙하는 신들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인류가 평화를 달성하려면 다만 물질적인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해결하는 길은 인간이 사는 지구와 신명이 사는 우주가 다 같이 평화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조화선경사상이요 우주정부사상이다. 甌山은 지구문제를 우주화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한 맨 첫번째 사람이다.

甌山 이전에도 우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와 인간을 전연 별개의 存在로 보았을 뿐 그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요즘 우주과학이 발달되어 우주에 관한 인류의 관심이 커졌지만 아직은 우주와 인간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甌山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주는 먼 곳이라고만 느끼고 있을 때 그 우주와 지구와 인간은 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구문제의 해결은 우주적 시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했다. 甌山이 三界大巡思想 天地公事思想을 주장한 것은 인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우주에서 구한 우주화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대순은 영원한 순환이다. 우주의 궁극점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으로 대

순하는 것은 천지인 삼계 모두 같다. 우주는 영원한 팽창과 수축이요 지구도 영원한 사시의 순환이며 인사도 영원한 생사의 윤회라는 것을 대순으로 요약하였는데 대순이야말로 천지인 삼계에 공통된 영원한 진리다. 그 대순의 진리 즉 우주화적 시각이 大巡思想의 첫번째 요지이다.

대순은 공간적으로는 천지 우주의 전체에 미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전부에 미친다. 이 대순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도수다. 이 도수에 의하여 삼계가 순환하고 신명과 인간도 순환하는데 천하가 도수대로 움직이는 것은 천하 대순이요 그 도수를 어긴 것을 바로잡는 것은 天地公事이다.

천지도수가 자연법칙과 다른 것은 자연법칙은 인간의 심성과는 관계없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법칙임에 대해 천지도수는 인간의 심성규범의 기본이 되어 그것이 자연계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 고로 동서남북신이 마음에 의지한다」⁵⁾, 「천지간에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나니라」⁶⁾,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⁷⁾, 「先天에는 謀事在人하고 成事在天이라고 하였으나 後天에는 謀事在天하고 成事在人하니라」⁸⁾ 등의 말은 천지도수의 근원이 인간의 마음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대순 사상은 천지도수를 따르는 것이요 천지도수는 곧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신명사상

만물은 본래 천지도수에 따라 天下大巡 하면서 상생조화토록 되어 있다. 인간의 心性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천하만물이 본래 천지도수에 맞추어 상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생의 천지도수가 어긋나서 相戾이 되는 것은 相生을 해치는 원인이 있어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원한

5) 『典經』, 교운, 1-6 (현무경)

6) 『典經』, 교법, 3-2

7) 『典經』, 교법, 2-56

8) 『典經』, 교법, 3-35

이다. 그러므로 원한을 풀어 없이하면 天下萬物은 본래의 상생도수로 돌아간다. 이것이 解冤相生의 원리다. 해원은 사랑의 최고의 형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말한다. 자비는 불행한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요 용서는 원수라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원은 불행의 근본 원인인 원한을 없애 버림으로써 불행 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해원은 원수라던지 미움이라던지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불행과 미움의 근본 원인인 원한을 푸는 것은 人間性의 本性의 상생조화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원이 되면 불행도 미움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과 지구와 우주는 본래 하나다. 인간의 불행이 인간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신명계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명해원의 문제가 생긴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여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선경이 세워지니라」⁹⁾,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대한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들이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걸고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할지니라」¹⁰⁾ 등에서 상극을 바로잡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

원한 가운데 신명들의 원한 사후영혼들의 원한이 우주 가운데 차있으면 아무리 인간끼리 화해하더라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 종교사이의 갈등 과거 역사의 갈등을 먼저 풀어버려야 하는데 甌山은 통일신단, 조화선경, 지상신선, 지상천국사상을 내세웠다.

종교에는 유일신 종교와 다신적 종교와 범신적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사이의 신의 위계 때문에 갈등이 심하다. 특히 유일신 종교에서는 자기 종교가 믿는 유일신만 신으로 인정하고 기타의 신은 악마나 사탄이나 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하여 끊임없는 종교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종교에 대하여 동양인은 대체로 관용하여 儒佛仙 사이에 큰 갈등이 없고 서로 호의적이

9) 『典經』, 공사, 3-5

10) 『典經』, 교법, 3-23

다. 이는 동양의 종교가 대체로 다신적이나 범신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양의 기독교나 중동의 이슬람교등 유일신적 종교는 서로 종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

수운이 창도한 동학에서는 유불선 삼교를 모두 수용하였고 서학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甌山은 유불선 삼교는 물론이요 여기에 민간신앙인 무속도 포함시키고 기독교도 제자리를 갖추게 하여 모든 종교를 포함하여 통일신단을 구성하고 조화정부를 설립시켰다. 지금까지 유사 이래 인류가 믿어온 신의 종류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지역별신도 있고 기능별신도 있으며 善神도 있고 惡神도 있으며 자연계와 영혼계와 인간계에 한없이 존재한다. 甌山은 이제까지의 인류가 믿어온 신들을 정리하여 질서를 세우고 지방신과 문명신으로 統率케 하고 그러한 모든 신의 최고지위에 우주신으로서의 상제를 인정하여 신들을 통일시켰다. 이 거대한 작업을 甌山은 天地公事를 통해서 이룩해냈다.

天地公事に 의하여 형성된 통일신단은 곧 地上神仙이요 地上天國인데 이에는 도통한 도인이 신으로 참여하고 甌山이 上帝로서 관리를 한다.

상제는 삼계대권을 쥐고 천지도수를 관리하는데 다른 종교에서의 최고신이 권위적이고 군림적인데 비해 민중적이고 봉사적인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 신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여 왔다. 그것은 마치 정치적 통치자가 인민을 일방적으로 지배해 온 것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통치자는 인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인민의 봉사자다. 그와 같은 민주적 원리를 신의 세계에 최초로 제시한 이가 甌山이다. 甌山이 스스로 상제라고 자각한 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관리하고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한 책임감에서이다.

甌山은 인존사상으로 신을 인간 안으로 끌어들였다. 신이 인간을 떠나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것은 수운의 영향에서 이다. 그는 수운보다 다시 더 나아가 인간이 신을 부린다고 했다. 신을 인간에 내재하고 양심에서 찾은 甌山은 자기가 도통하므로써 양심의 신성을 확신했다. 그가 상제라는 확신은 우주

최고위의 자리에 오르기 보다는 인간에게 최고의 봉사를 하기 위함이 분명하다. 그가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신들을 모두 긍정하고 그 신들의 평화공존이 인간의 평화공존을 보장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우주의 진리가 대순이요 대순은 조화상생의 길이요 대순의 도수를 바로잡는 것이 天地公事요 天地公事를 몸소 실행하여 인류는 물론이요 천지만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의 상제의식은 실로 지금까지의 군림적 지배적 신관과는 파격적으로 다르다. 그야말로 종교계의 하나의 개혁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인존사상과 아울러 그의 상제의식은 실로 이제까지 아무도 착안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지도사상

(가) 원시반본사상

大巡思想이 우주화적 시각에서 형성되었느니 만큼 그 어느 종교사상 보다 보편성이 강하다. 大巡思想은 우주화사상으로 그 원심성을 극대화하였는데 이같이 극대화된 원심성은 그 기본이 튼튼한 것을 전제로 한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 확대는 사상누각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므로 원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구심성이 튼튼해야 한다. 大巡思想의 원심성이 우주화라고 한다면 그 구심성은 원시성이라 할 수 있다. 우주화가 확실하려면 원시성이 확실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시반본 사상이다.

「옛적에 神聖이 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聖과 雄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갈래로 되리라」¹¹⁾

「忘其父者 無道 忘其君者 無道 忘其師者 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是故 天下皆病」¹²⁾에서 대순의 구심성을 볼 수 있다.

11) 『典經』, 교법, 3-26

12) 『典經』, 행록, 5-38

세상이 어지럽고 다 병들어 있는 것은 그 근본을 망각한 데에 있음으로 그 병을 고치는 법은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메일 때 덮어놓고 아무데나 간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인간이나 신계가 병들어 있을 때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원시반본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한 것인데 원한이 쌓여 악해졌으므로 그 원한을 풀어없애면 본래의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 신계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요 인간은 자연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자연이 원시반본되면 사회도 원시반본된다.

자연의 원시반본은 순수한 자연의 조화상태로 돌아가 천지인이 일체가 되고 삼계가 일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막혔던 천하대순이 트이는 것이다. 본래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었다. 하나이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므로써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재앙을 받게되어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 요즘의 자연보호사상이다. 자연을 닦아 상생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혀 양심을 잃고 상극하게 되었는데 그 원시반본은 人間性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요즘의 인간성 회복사상이 그것이다.

인간의 사회도 본래는 평화스러웠는데 인간성이 상극화하면서 사회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조화본연의 사회 즉 선경으로 원시반본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요즘의 이상사회 건설운동이나 유토피아 사상이 그것이다.

원시반본 사상은 자연을 되찾고 인간을 되찾고 사회를 되찾자는 것인데 천지인이 그 본래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연의 원시반본은 자연과의 공존사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요 인간의 원시반본은 조상의 유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원시반본은 태고의 신성에 돌아가 지도자되는 사람이 성인과 영웅을 겸해서 덕과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성인과 영웅이 갈라져 정치와 교화가 분리된 데서 병을 얻고 인간은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데서 병을 얻고 자연은 자연 속의 신성을 잃어버린 데서 병을 얻었다. 여기에서 그 아버지를 잃고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병으로 쳤는데 인간의 원시반본에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조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화를 외친 龜山이 아버지에 대한 효를 강조한 것은 일견 모순된 듯하나 우주화의 근본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고루한 보수사상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을 대하라는 것이다. 인존사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인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중에 내재해 있는 신성을 확인하고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모든 인간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불효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를 잃고 효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게 병든 사람이요 그 병든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부자지간은 혈연으로 맺어졌으므로 본능적으로 친밀감이 있다. 부자지간에 그러한 친밀감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탈한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효는 하필 아버지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 끊임없이 올라가 시조에 이르고 그 시조를 탄생시킨 국토에 이른다. 자기 조상이니 자기국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조상이나 다른 국토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 만일에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남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즉 환부역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요 부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龜山은 하필 혈연상의 조상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사상상의 조상 즉 스승에 대해서도 중요시하였다. 龜山이 수운을 늘 존경하였고 또 암묵적으로 우리 나라 국조인 단군에 대해서도 존경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원시반본사상이요 민족주체사상이다.

원시반본은 그 근본을 존중하는 사상이어서 주체성이 강하나 그것은 천하대순을 위한 기본작업이다. 원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 구심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 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주체가 없으면 다른 종교나 사상을 포용할 수가 없다. 龜山의 만교 통합의 기초는 수운의 東學에 있고 동학의 기초는 우리 민족의 선사상에 있으므로 龜山은 천하를 대순하면서도 원시반본을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나) 진경사상

大巡思想은 도통하여 진경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천시대에는 원한이 가득차서 상극의 세상이었으나 甌山이 天地公事로 후천개벽을 이루어 천하대순의 법도를 바로잡아 상생의 세계를 실현시켰으므로써 일반 사람도 수도를 하면 도통하여 지상신선을 이루고 지상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그 지상신선이 사는 지상천국이 바로 선경이요 진경이다. 그러므로 진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염원하던 이상사회다.

진경은 解冤相生되어 신인이 조화되고 음양이 합덕되는 세상인데 이 곳에서는 오직 진리만 존재하고 허위는 없다. 허위의 가장 큰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인데 진경에서는 마음의 본래의 상태를 회복한 도통인이 양심대로 사는 세상이므로 항상 그 양심을 지켜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덕을 삼가고 늘 남을 잘되게 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마음은 신명의 세계와 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면 신명의 세계도 평안하다. 인간의 세계와 신명의 세계가 다 평안한 것이 신인조화의 진경이다.

지금까지는 대개의 종교가 현세를 부정하고 천국을 내세에 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大巡思想에 있어서는 인간과 신명이 다르지 않고 현세와 내세가 다르지 않다. 大巡思想에서는 인간으로 있으면서 신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도통한 경지다. 도통한 사람은 신선이다. 대개 신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후에나 이룰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大巡思想에서는 사후가 아니라 바로 생전에 신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지상신선이다. 또 대개 천국이라는 곳도 사후에나 갈 수 있는 것이요 생전에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大巡思想에서는 사람이 살아서 신선이 될 수 있는 이상 천국이라는 곳도 꼭 사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전 지상에서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지상천국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진경이다. 진경은 신인이 조화되고 음양이 합덕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상극으로 지리멸렬 되었던 인간의 세계와 신명의 세계는 후천개벽으로 상생의 세계를 이루어 모든 것이 협동하고 통일된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서로 갈등하던 종교도 통일되고 지금까지 서로

다투는 문명도 통일되어 인류평화, 우주평화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진경에서는 어느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존하며 어느 하나의 문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명이 공존한다.

인류는 오래동안 상극의 논리에 시달려 왔다. 상극의 논리는 부정사상이요 분열사상이다. 서양의 변증법 사상이나 분석 사상이 인류의 분열을 조장해왔다. 변증법은 정(정립)·반(반대)·합(종합)의 원리로 相飢의 논리이나 相生의 논리는 정(정립)·생(생성)·합(종합)원리로 통일의 사상이다.

태초에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고 태극이 음양으로 상생하여 대순하는 것이 천지의 법도요 宇宙의 運行이다. 무극의 원점은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중심을 꿰는 신성이요 양심이요 천명이다. 그것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우주에 차있는데 그것이 무극이다. 그 무극이 활동을 개시하면서 표면화될 때 태극이 된다. 그 태극이 진행하는 것은 음양으로 대순하는 것이다. 음양은 상극이 아니라 상생이다. 음과 양이 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음과 양은 상대방과 어울려서 상보하면서 작용한다. 음양은 그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작용할 수도 없다. 음이 작용하려면 반드시 양의 보조를 필요로 하고, 양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음의 보조를 필요로 한다. 양이 없으면 음도 없고 음이 있어야만 양이 있다. 이것이 음양상생의 원리요 음양상보의 원리이다. 음양이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여야만 음양이 대순할 수 있다. 음양이 서로 반대한다면 대순은 이루어지지 않고 곧 단절되고 만다. 천지도수는 무한한 순환인데 이 순환은 음양의 상생에서 이루어진다. 음양이 상극된다면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양의 소크라테스, 헤겔, 마르크스 등에 의하여 발전된 변증법의 상극적 논리와 데카르트, 프로이트 등에 의하여 발전된 분석철학의 논리는 인간의 해석과 역사의 관점을 투쟁으로만 특정지웠다.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수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도 이러한 견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팅턴은 1993년 「문명의 충돌」이라는 논문에서 새로운 전쟁은 이질화된 문명의 충돌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을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으로 나누고 앞으로는 서구문명과 비서구문명이 충돌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극사상은 大巡思想에서는 용납하지 않

는다.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만을 따로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¹³⁾는 龜山의 사상은 모든 문명이 서로 공존하고 다같이 작용하여야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신과 인간이 합일되고 정신과 물질, 음과 양이 조화되는 지상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상신선, 지상천국의 실현으로 인류가 오래동안 대망하던 이상사회가 비로소 실현되었다.

(3) 인도사상

(가) 解冤相生 사상

우주와 인간은 본래 평화적 상생적 질서로 이루어진 것인데 천하가 불안한 것은 신명계나 인간계가 원한이 차있는 데에 비롯된다는 것이 龜山의 지적이다. 이 원한이 남아 있는 한 천하가 평안할 수 없으므로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이 원한을 푸는 데 있고 이 원한을 푸는 것이 해원이요 해원으로 상극을 푸는 것이 상생이다. 이 解冤思想은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의 사상과 비교해 보면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의 사랑이 인간의 원죄의식에 근원하는 용서의 정신이라면 불교의 자비는 인간의 동병의식에 근원하는 동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간통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소」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라고 했다. 예수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이 죄인을 다스릴 수는 없고 오직 용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불경의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가 병들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문병하여 「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유마거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병들고 있으므로 나도 병들고 있으며

13) 『典經』, 예시, 13절

만약 세상사람들의 병이 다 나오면 내 병도 나올것」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다 같은 병자이므로 서로 괴로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서 甌山의 解冤思想은 동체의식에 근원하는 정화의 정신이다. 천지 만물이 다 일체인데 그 일체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힌 곳이 있으면 전체가 막히므로 천하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막힌 곳을 뚫어서 전체를 정화시키면 천하가 통정되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다. 동체의식에서는 신체 일부의 부정한 곳이 정화되므로써 전체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할 수 있다. 그 부정이라는 것이 바로 원한이다. 그와같은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용서 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다. 원한이 깨끗이 해소되었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가 병리학적 요법이라면 甌山의 解冤思想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생리학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속에 「한풀이」 또는 「살풀이」라는 것이 있다. 이 한풀이는 한을 품은 원신을 일시적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원신이 붙어서 불행을 갖고오기 때문에 그 원신을 쫓으면 불행이 살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속에서의 살풀이다. 그러나 이 살풀이는 불행을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으나 그 원신이 존재하는 한 언제 또 그 원신이 붙을 지 모른다. 이에 비해서 甌山의 解冤思想은 원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신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원한을 근본적으로 깨끗이 해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원신이 이미 없어져서 원신이 다시 붙을 가능성이 없다. 이는 인간의 심성이나 신명계에서 원천적으로 원한을 없애는 것이요 원한을 일시적으로 추방하는 살풀이보다 더 근원적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불성을 자각하면 이를 견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번뇌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원죄를 소멸해 버리면 이를 성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大巡思想에서도 해원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불행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견성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근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의 은총에 의하는 것이지만 해원은 자력과 타력을 합쳐서 이루어 진다. 견성한 사람은 부처가 되고, 성결이 된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나 해원된 사람은 眞人이요 또 신선이

다.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어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은 그르치느니라」¹⁴⁾

「사람들끼리 싸우면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느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귀정되느니라」¹⁵⁾에서 해원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는데 원한이 가득한 선천상극 시대로부터 후천해원 상생시대로서의轉換이 바로 後天開闢이다.

(나) 도통사상

천하를 대순하고 삼계를 대순할 수 있는 것은 천지만물이 일체요 삼계가 합일된다는 상생원리가 그 전제가 된다. 음양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합덕하여 하나를 이룬다. 음양이 합덕하고 신인이 조화되어 우주가 대순하는데 그 대순의 법도를 어기면 음양이 합덕하지 못하고 신인도 조화되지 않는다. 음양이 합덕되지 못하고 신인이 조화되지 못하면 대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바로잡는 것이 天地公事다.

일반적으로 종교행위라고 하면 내재적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내재적신을 자각하는 정좌 묵념이나 심고나 참선 같은 것이 있고 초월적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초월적 신에 접하고자 하는 치성 기도나 염불이나 송주 등이 있다. 甌山은 만물에게 신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신명을 자각하는 자력구제를 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상위의 신위, 즉 상제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상제의 권능을 자유자재로 행사하는 타력구제도 행했다. 우주신이 있기는 하지만 甌山이 도통 되기까지는 甌山이 그 우주신과 일체가 될 수 없었는데 아직 일체가 되기 전에는 우주신의 타력구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甌山の 天地公事는 개벽공사, 신명공사, 도수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 운회공사, 인존공사, 해원공사, 명부공사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甌山の 이러한 公事로 음양이 합덕되고 신인이 조화되어 解冤相生하고 도통진경의 세

14) 『典經』, 교법, 2-16

15) 『典經』, 교법, 1-54

계가 마련되었다. 天地公事는 만물일체의 기틀이 무너져서 만물이 따로 놀아 법도가 맞지 않을 때 그 법도를 바로잡고 만물일체의 원상에 복귀하는 행사다.

대순의 법도를 어겨 음양이 합덕되지 않고 신인이 조화되지 않는 것은 원한이 천지인 삼계에 있어 그러하므로 대순의 법도를 바로잡으려면 해원이 필수적이고 해원이 되면 만물의 본래의 면목인 상생으로 복귀된다. 그러므로 天地公事는 상극을 물리치고 상생으로 돌아서는 행위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상제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다. 甌山은 상제의 권능으로 天地公事를 시행하여 천지도수를 바로 잡았는데 일반인도 수도로 인하여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는 甌山이 후천개벽을 이루어 놓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수도로서 도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통하면 후천개벽으로 이루어진 상생의 세계에서 지상신선과 지상천국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통진경이다. 그러나 일반사람은 구태여 甌山이 행한 天地公事를 행하지 않아도 수도만 제대로 하면 천지만물일체의 경지에 들어가 도통할 수 있다.

사람은 심신으로 구성되고 또 천지와 동체이기 때문에 수도하는 데에는 먼저 양심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안정하고(안심) 행동을 도리에 맞도록 하고(안신) 마음 속에 상제님을 공경하고(경천) 성경신으로 지극하게 치성을 드리면 도통하게 된다. 치성을 드리는 방법에는 공부와 수련과 기도가 있는데 기도주나 태을주를 송독한다.

甌山이 천존 지존보다 인존을 선언하면서 또 상제의 자각을 가졌는데 이러한 인존적 기반에선 상제라는 것을 하필 甌山만이 독점물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도통하면 다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불교의 석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불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불의 가능성을 가르쳤듯이 甌山도 자신의 상제의식이 결코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도통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다를 수 있는 경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甌山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제는 어디까지나 甌山(구천상제) 또는 정산(옥황상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기독교처럼 신인이 별개라는 사상에서는 일반인은 결코 신이 될 수 없

졌지마는 신인이 일체요 더군다나 인존이라는 사상을 가진 龜山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통하면 상제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龜山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정산을 상제로 생각하는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를 이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산을 상제시하는 것은 천지음양이 양위인 것처럼 龜山과 정산은 양위상제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도통한 정산을 상제로 봄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도통하면 상제가 될 수 있다는 길을 튼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도통이라고 하여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 심중의 본래의 양심을 회복한 것이요 상제라고 여겨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 심중에 내재해 있던 본래의 신성을 자각한 존재라고 볼 때에 태극도나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정산의 상제시는 龜山의 사상을 진일보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6. 大巡思想의 우주사적 의의

지금 우리는 지구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지구시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사적 관점으로는 부족하고 우주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 우주사적 관점을 제시한 사상이 바로 大巡思想이다.

일찍이 우주철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우주과학도 발전되었지마는 우주사적 대순적 관점에서 역사를 본 것은 龜山이 최초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인간대로 우주는 우주대로 따로 세계사나 우주론을 전개한 철학자, 종교가, 과학자들은 많았지만 천지인 삼계의 거시적 관점에서 우주사적으로 인류의 운명을 고찰한 것은 大巡思想이 先驅者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인류문제만 해결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문제와 신명문제를 합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절실한데 그것이 바로 우주사적 시각이다. 이제 우주사적 시각에서 大巡思想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인간자유 의 확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일찍부터 동서양에서 많이 말해 왔다. 그것은

대개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도였다. 大巡思想에서는 인간을 신명계와 연계하여 생각하여 그 존엄성의 차원이 다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의 비교에서 존엄할 뿐아니라 신명계와 통하므로써 존엄하고 그 존엄성은 신명계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 大巡思想이다.

「天尊과 地尊보다 人尊이 크니 이제는 人尊時代이니라」¹⁶⁾

「先天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謀事는 在天하고 成事는 在人이니라」¹⁷⁾는 龜山의 말씀은 실로 폭탄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신관과 인간관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우주사적 견지에서만 가능한 발상이다. 인존이 천존과 지존에 앞설 수 있는 것은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¹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귀신의 중심이요 천지인이 다 마음에 메인 것이요 천지 우주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인존이 천존보다 더하다는 것은 자칫 신의 권위를 격하시킨 듯하나 이는 신의 권위를 더 높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신이므로 인간이 격상되면 신의 위치도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불교에서 유심론을 주장하여 일체만물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 하는데 불교의 유심론에서는 마음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불교는 무신론적 유심론이다. 그런가하면 기독교는 신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은 죄악적 존재로 보며 유물론에서는 신을 일체 부정하면서 물질의 존재만을 인정한다. 그런데 大巡思想에서는 유심론이면서도 불교와 같이 무신론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이며 그 신은 인간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림을 당하는 존재이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였지마는 요즘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죽음」까지 다다랐다. 이제 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인간도 없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물질 뿐이요 기계 뿐이요 조직 뿐인데 인간은 마침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조직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龜山은 인존사상으로 인간을 살리는 동시에 신도 살렸다. 그러나 신이

16) 『典經』, 교법, 2-56

17) 『典經』, 교법, 3-35

18) 『典經』, 교운, 1-66

살았다고 해서 인간이 다시 신의 노예가 될 수는 없고 신도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의 운명과吉凶禍福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마음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¹⁹⁾의 甌山의 말씀은 신명에 대한 기도보다 마음의 정화가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낸 것이요 아울러 인존이 신존보다 우위에 있어 人間尊嚴性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인간은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격하시키고 스스로 동물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인간이 지구에서는 물론이요 우주적으로도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왔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시키는데 있어 天尊地尊 보다도 人尊을 더 우위에 놓은 甌山의 人尊思想을 따를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격리시켜 神尊人非 思想을 나타내고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동격으로 보아 神人同等思想인데 大巡思想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시도하여 신과 인간의 동격의 수준을 넘어서 인간을 신의 상위에 두는 人尊神非 思想을 전개했다. 그렇다고해서 大巡思想이 신을 격하시킨 것은 아니고 인간을 격상시킴으로서 신의 권위도 함께 격상시킨 것이다. 이는 신과 인간이 본래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神人造化로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甌山이 짐작 천존 지존보다 인존이 더 높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神尊人非 思想이 너무 강한 것을 시정하기 위함이요 결코 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인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하고 도통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존을 뛰어넘는 인존이 되는 것이다. 신인일체의 경지에 가서 비로소 인존이요 인존은 동시에 신존이 된다. 정신개벽을 이루고 인간개조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곧 인간의 자유성이다. 존엄성과 자유성은 표리관계에 있다. 존엄하면 자유를 누리고, 존엄하지 못한

19) 『典經』, 교법, 1-21

자에게 자유는 없다.

大巡思想의 인간존엄성의 자각은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는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신의 노예가 되어 부자유하였고 조직이나 기계의 노예가 되어 부자유하였는데 인존사상으로 인간은 조직도 부리고 기계도 부리고 신도 부리는 대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인류평등의 실현

人尊思想은 人間自由思想과 더불어 人類平等思想을 이끌어 낸다. 인존이 천존 지존보다 상위라는 것은 지금까지 천존 지존에 비해 비하되었던 인간존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요 결코 천존 지존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천지인은 본래가 일체인데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높으면 다 높고 낮으면 다 낮을 뿐이다. 龜山이 특별히 인존을 강조한 것은 선천에서 불필요하게 비하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인간은 남녀나 계급적 차별없이 모두 평등하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 우주적 영혼, 귀신이 모두 평등하다. 그런데 오랫동안 동서를 막론하고 불평등 사회를 이루어 그 불평등 사회를 혹은 유지하고자 혹은 파괴하고자 인류는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특히 土農工商의 유교적 봉건체제와 남존여비의 그릇된 사상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극심하였다. 이 불평등을打破하고자 동화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을 龜山은 직접 목격하였다. 龜山은 폭력을 가지고서는 다시 폭력을 부를 뿐이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拔本塞源의 처방으로 해원상생의 원리를 제시했고 오직 이 방법만이 불평등한 인류사회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龜山과 거의 동 시대인으로 칼 마르크스와 레오 톨스토이가 있다.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폭력과 계급투쟁으로 사회를 개조하려고 하였고 톨스토이는 비폭력 저항으로 인간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폭력적이고 급변적인 사회개조는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비폭력주의는 평화적이기는 하나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미미하다. 아무리

사회가 개화되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간의 개조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인간이 개조되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폭력혁명이나 비폭력 개조운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龜山은 천지도수를 바로잡는 天地公事와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는 解冤相生을 겸행하여 천지와 인간을 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시켜 상극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는 정음정양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불우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병도 치료하고 곤경도 극복시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평등하도록 유도했다. 龜山 생존시 서양 문명의 우수한 것을 내세워 서양인이 동양인을 침략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대개의 식자들이 서양을 배격하는 행동으로 나왔지마는 龜山은 서양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인간인데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를 바 없고 같은 진리인데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다를 바 없다는 철저한 인류평등 사상이다. 기독교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킬 때에도 그 기독교를 중국에 전한 이마두를 높이 평가하여 서도의 종장을 삼았다. 또 그는 불우했던 진묵대사를 서방으로 보내고 龜山 자신도 천계에서 일단 서방 천계탑에 하강했다가 동토에 임하였다고 하니 동서를 차별없이 자유자재로 왕래하여 인류평등을 몸소 실천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인종적 차별, 종교적 차별, 빈부적 차별, 지역적 차별, 남녀적 차별, 세대적 차별 등이 엄존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류전체가 해원함으로써 상생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천지인 삼계가 일체요 만물이 동등한 大巡思想만이 인류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동과 서가 다르다는 차별의식은 서양의 변증법적 분석사상이다. 동양의 합일적 음양사상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는 하나가 되고 거기에 차별의식이 있을 수 없다. 근자에 남녀평등론이 성하는데 이는 대개 지금까지 억압 당하였던 여성계급이 남성계급에 대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 방법에 그치고 근본적 방법이 아니다. 오직 정음정양의 원리에서의 양이 끼친 음속의 한과 음이 끼친

양속의 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면 자연히 음양은 동등을 회복할 것이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태극은 음과 양이 상생하는 것이요 상극하는 것이 아니다. 상극하는 것이라면 음양이 합치면 무(제로)가 되는 것인데 음양이 합쳐서 비로소 음양다워져서 유(플러스)를 낳는다는 것이 바로 음양평등의 원리이다. 제로 썸이 변증법이라면 플러스 썸은 음양사상이다.

(3) 우주평화의 완성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인류의 일원으로 세계사적 존재이며 동시에 신명으로서 우주사적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아야 그 정체가 확실하게 보인다. 지금 인류는 국제화, 지구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세계화적 시각을 넘어서 우주화적 시각에서 보아야 인류의 정체와 운명을 제대로 내다볼 수 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과 민족과 국가 그것 자체에 매달려 세계화적 안목도 부족한 때에 龜山은 이미 세계화를 넘어서 우주화적 견지에서 인간과 민족과 국가를 보았다. 여기에 龜山의 선각자적 예지가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인간적 가치로서 진선미를 추구하여 왔고 진선미의 극치로서의 성인을 대망 해 왔다. 그동안 많은 성인이 출현하여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인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진선미의 사회적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진선미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자면 사회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인류의 관심은 사회제도의 개혁으로 쏠려 많은 개혁과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실패한 것도 많지만 역사를 전진시킨 것도 적지 않다.

혁명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었다.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진선미도 어떠한 행복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들 수가 있다. 프랑스 혁명은 장자크 루소의 사상이 기초가 되어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은 빈부의 격차를 가져와 사회 평등이 파괴되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표방한 바는 평등으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기초

가 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세우고 개인의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전체주의에 입각하여 계획경제를 시행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취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이념의 대립으로 反目 하였는데 자본주의는 부단한 체제내 개혁으로 사회개혁을 시행하여 불평등의 요소를 제거하는데 힘써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나 공산주의는 그 독재성으로 인민의 創意를 啓發하지못해 생산이 둔화되어 1991년의 소련방의 붕괴로 약화되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금 세계사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만이 남아 그것으로 역사는 끝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주의의 평등의 이념은 아직 살아있고 또 자본주의도 병들어 있어 앞으로 어떠한 체제가 나타나 인류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가 하는 것이 금후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다.

자유와 평등은 다 중요한 사회정의지만 자유와 평등은 이율배반을 이루어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무시되기 쉽고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무시되기 쉬워서 그것이 고민거리로 되어 있다. 최수운이나 강증신이 후천개벽을 부르짖는 것도 이러한 모순의 하나의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수운의 동학사상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하였고 姜甌山의 大巡思想은 평화적 선경실현을 기약했다. 수운이나 甌山의 후천 개벽사상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혁명사상과는 다른 데가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혁명사상은 대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데 비해 후천개벽사상은 먼저 종교적으로 심성의 정화를 한 뒤에 비폭력적 평화적으로 혁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甌山이 먼저 인간성을 개조하여 성인화시킨 후에 평화적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것은 그러한 맥락이다.

자유와 평등은 이율배반이지만 이 두가지 정의는 다같이 공존해야만 인류사회는 행복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을 공존시키기 위해 수운은 먼저 수심정기를 가르쳤고 甌山은 먼저 解冤相生을 가르쳤다. 수심정기나 解冤相生은 오직 성경신을 다하여 수도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그 수도가 완성되어 도통된 이후에는 저절로 즉 평화적으로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甌山이 특히 解冤相生을 역설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도사리고 있는 불행의 씨앗인 원한을 완전하게 없앴으로써 인간 본연의 사랑의 마음 호생의 덕을 회복하여 선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解冤相生이 되어 인간의

마음이 천지 대자연과 공생하는 대자, 대인, 대애의 경지에 이르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평등도 누릴 수 있다. 解冤相生하여 도통군자가 되면 자유와 평등이 결코 상극하는 이율배반이 아니고 상생하는 동반자가 된다. 그 것은 음양과도 같이 합덕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평화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공존시키는 이른바 제삼혁명이랄 수 있는 후천개벽 사상은 앞으로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이 평등혁명이라면 龜山의 후천개벽은 평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미움이나 폭력을 배제한 사랑과 자비와 박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요 그 평화속에는 자유와 평등이 모순없이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평화사회의 표본은 가정에서 본다. 가정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평화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장에서는 자유는 있으나 평등이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원형이다. 집단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군대에서는 평등은 있으나 자유는 없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원형이다. 그런데 시장은 상업생활을 하던 서방사회의 모태요 군대조직은 유목생활을 하던 서아, 동구, 중동 등지의 東西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중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의 모태다. 동방은 상업생활이나 유목생활이 아닌 농경생활을 하고 농경생활의 기지는 가정이었다. 그러므로 서방문명이 시장에서 발달되고 중방문명이 군대와 같은 집단에서 발달하였다면 동방문명은 가정에서 발달되었다. 시장의 윤리는 자유요 집단의 윤리는 평등이지만 가정의 윤리는 평화다. 자유를 위해 혁명이 서방의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평등을 위한 혁명이 중방의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평화를 위한 혁명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세기는 자유냐 평등이냐의 이자택일의 시대였는데 21세기에는 자유와 평등이 상생공존하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자유는 서방이 이끌었고 평등은 중방이 이끌었으나 평화는 동방이 이끌 것이다. 그 동방의 평화혁명 사상이 바로 大巡思想이다.

자유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평등은 사회의 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는 우주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는 인도요 평등은 지도요 평화는 천도다. 자유는 인간개조로 이루어지고 평등은 사회개조로 이루어지지만 평화는 천리에 순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우주는 물질과 생명과 인간과 영혼과 신명과 상제 등 만물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평화가 확보되어야만 지구의 평화도 인간의 평화도 이루어진다. 단순히 인류평화라던지 지구평화라던지 국제평화만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천계에서 신명들이 평화스러워야 지계도 인계도 평화스럽다.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龜山의 解冤思想은 평화문제를 우주적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평화사상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다.

지금까지 종교적 차원에서 혹은 천당 혹은 극락 혹은 낙원 혹은 선경 등 여러 가지 평화경이 제시되었지만은 대개 관념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또 정치가들이 이념을 내세워 이상적 사회를 구상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것을 무리하게 폭력을 가지고 억지로 실현시키고자 하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상사회는 심신일여로 정신과 물질이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解冤相生으로 조화선경을 이루고자 하는 大巡思想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틀림없다.

우주평화가 완성될 때 우주상의 모든 존재가 상생공존한다. 천체도 공존할 것이요 천체내에 있는 모든 존재도 공존할 것이다. 천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아직 인지의 한계로서는 알 수 없으나 천계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법도에 맞추어 제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 우주평화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평화는 망망대해의 한알의 좁쌀 같은 작은 평화다. 우주평화의 입장에서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여 지구상의 작은 문제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구와 천체가 하나인데 지구상의 민족이나 국가나 문명이나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선각자들은 늘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자적 구실을 하였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였다. 그런데 龜山은 우주적 시각에 서서 신이 인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부린다고 하였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여 지구가 격하된 것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는 다같은 하나의 천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일정한 법도에 의하여 움직인다. 龜山이 인간이 신을 부린다고 하여 신이 격하된 것이 아니다. 신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인존이 된다. 인존과 천존과 지존이 본래 같은 법도로 대순하는 동체일신이므로 인존사상은 신의 위상도 높은 것이다.

大巡思想은 지금까지의 근시안적인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위주의 세계관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우주화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아 인간을 좁은 관점에서 해방시켰다. 그의 이와 같은 우주화 사상은 세계사적 의의를 훨씬 넘어서 우주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